

石宙善記念 民俗博物館 開館 二周年 記念

第一回 學術세미나

主題：1. 染織品の 保存과 陳列

- 科學的 方法과 傳統的 方法 -

田實榮子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 主任研究官)

2. 朝鮮時代 出土服飾의 實態

石宙善 (石宙善記念 民俗博物館 館長)

日時：1983. 5. 2~5. 3

場所：石宙善記念 民俗博物館 세미나실

主催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記念 民俗博物館



 * 染織品の保存と陳列 *

—科學的方法と傳統的方法—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
 主任 研究 官 田 實 榮 子

※ 學 歷 及 經 歷

- 1948年 東京女子高等師範學校（現お茶の水女子大學）文科卒業
- 1948年 國立博物館附屬美術研究所
 （現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に 入所（現在）
- 1960年 お茶の水女子大學 家政學部 講師（現在）
- 1963年 お茶の水女子大學 大學院 家政學研究科 講師（現在）
- 1968年 日本女子大學 家政學部 講師（現在）
- 1977年 日本女子大學 大學院 家政學研究科 講師（現在）
- 1981年 大妻女子大學 大學院 家政學研究科 講師（現在）

※ 主 要 著 書

- 小 袖 至文堂 （1971年）
- 型 染 藝艸堂 （1975年）
- 紀州東照宮の染織品 藝艸堂 （1980年）
- 増上寺 徳川將軍家墓とその遺品遺體 東大出版（1967年）
- 高雄曼茶羅の研究 東京國立文化財研究所（1967年）
- 上杉家傳來衣裳 講 談 社 （1969年）
- 日本の染織 毎日新聞社 （1975年）
- 日本の染織 第二卷 武家舶載裂 中央公論社 （1981年）
- 日光山 輪王寺 舞樂裝束 サントリ美術館 （1981年）
- 武家の染織 中央公論社 （1982年）

染織品(纖維品)은 다른 美術品이나 工藝品과는 달리 大部分이 消耗가 심한 衣類이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는 헤어질때까지 입기 때문에 衣類의 形態는 고사하고 한조각의 천조차도 남지 않는다. 그런 中에서 極히 드물게 남아있는 實物의 遺品資料를 基礎로 해서 우리들은 染織工藝史의 調査나 研究 陳列을 行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實物資料가 全無하거나 極히 적어서 壁에 부딪치게 되어 일이 停滯될 뿐아니라 추측에 의해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染織品을 調査·研究하는 우리들은 文化遺産으로 남겨져 있는 貴重한 染織遺品을 어떻게 하면 손상없이 調査하고 保存하며 또 陳列할 수 있는가 하고 늘 생각하면서 充分한 配慮를 하여 일을 進行시키고 있는 것이다. 他文化財에 比해서 遺品資料가 적고 그 적은 遺品資料마저도 매우 상하기 쉬운 危險性이 있어(外見上으로는 完全한 形態를 하고 있어 튼튼해 보이지만) 纖維가 急速히 褪色되어가거나 무르게 되어 버리는 수가 많으므로 充分히 注意하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때 우리 研究所(文化廳 博物館 所藏品들의 科學的 保存方法과 修理의 研究를 전담하고 있음)에서도 研究室에서의 實驗例는 相當히 된 것으로 생각하여 自信을 가지고 文化財의 遺品資料에 그 方法을 施行해 본 결과 쓴 經驗을 한 일이 있어 染織品에 對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科學的인 修理法을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保存科學部長으로부터 그點에 對하여 잘 傳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점은 미리 알고 留意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별것 아니라고 서둘면 뜻밖의 일이 일어나므로 日本의 失敗를 거울삼아 慎重하게 實行함이 바람직하다. 금번에 科學的 方法에 의한 纖維品の 保存法에 對하여 依賴가 있었으므로 이것은 現在 우리 研

研究室 (나는 美術部에 屬하는 研究員이지만) 의 保存科學部 및 修理技術部の 研究員들이 30餘年間 研究를 해오면서 失敗를 거듭한 끝에 到達한 現段階의 資料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피력하겠다.

染織品の 遺品資料는 四·五百年程度前 것이면 傳世品 (出土品이 아니고 地上의 것이나 집안에 現在까지 남아있는 것) 도 있으나 그以前의 것은 大部分의 나라에서는 墓에서 나온 出土品이다. 墓에서 나온 出土品 가운데 染織品은 當然한 일이지는 하지만 保存狀態가 좋지 않다.

이따금 좋은 狀態대로 出土된 染織品도 있으나 그것은 極히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日本에는 7世紀 後半에서 8世紀까지의 染織品이 傳世品으로 30萬餘點 남겨져 있는데 그것은 거의가 中國系의 渡來品이고 대부분이 錦·綾·平絹의 絹物이다. 麻는 거의 苧麻의 日本産이지만 그 수는 적은데 이것은 奈良의 東大寺의 正倉院 것보다 50年程度 더 오래된, 即 7世紀後半頃の 것이 傳來品으로 남겨져 있으나 이것은 正倉院의 染織物에 비하면 0.5%로 되지 않는다. 正倉院의 染織品은 校倉建物 (三角形의 긴 木材를 짜 올려서 만든 倉庫) 倉庫에 保管되어 1200年이나 傳하여 내려왔는데 그것은 그 保存狀態가 좋은 條件에 있었기 때문이고 今日에 이르기까지 火災를 입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幸運이라 하겠다. 그런데 今後의 일을 생각하여 保存條件을 걱정하면서 火災를 당하여 灰(灰)가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校倉建物の 諸條件을 調査하여 알 수 있는 한의 條件을 그와 맞추어서 鐵筋 콘크리트의 藏을 만들고 現在 그곳으로 移動시켰으나 이 콘크리트의 藏에서 果然 今後 1200年後까지 지금처럼 처음 새로 만들었을 때의 狀態대로 傳하여 질지는 疑問이다. 예컨대, 나중에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山形縣上杉神社에 現在 所藏되어 있는 戰國時代 (16 世紀) 의 武將 上杉謙信의 衣類 (服飾品) 100 餘點이 참으로 좋은 狀態로 上杉家에서 傳하여져 내려왔는데 (土藏二層의 唐櫃 <네발이 달린 중국식 캐비닛 > 에 넣어서 每年 一回씩 가을철 空氣가 乾燥하고 맑은 날에 全部를 꺼내어 그늘에 말리면서 空氣를 쪼이고 저녁 무렵에 全部를 접으면서 各部分을 살피고 防虫劑를 適當히 넣어서 唐櫃에 집어넣어 土藏二層에 保管한다. 이와같이 日本에서는 흔히 있는 傳統的인 衣類의 保存法을 行하여왔다. 但上杉家에서는 上杉家 初代の 謙信의 服飾類는 格別히 소중히 다루고 每年 꼭 이 舉風을 行하였고 그것도 家長이 先頭에 서서 總指揮하여 行하였다함) 이들 服飾品이 重要 文化財로 指定된 후 上杉神上에서는 高床式 콘크리트의 倉庫를 만들어서 空氣調節이나 濕度調節을 完備시킨 이 倉庫에 全部 옮겼다. 그런데 除濕機에는 每日 아침 큰밭도 2 個에 모두 물이 가득 고여 있고 (除濕機 2 個 설치) 每日 아침 그만큼 물을 버리고 濕氣를 除去함에도 불구하고 重要文化財로 指定되어 있는 衣類가 들어있는 筥簞의 最下段과 그 上段 上段에 들어있는 衣類는 濕氣를 품고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새로 콘크리트 收藏庫가 完成된 후에 이 狀態는 언제나 그러하였고 콘크리트 建築의 水分의 問題는 計算대로는 안되는 것이라고 上杉家 傳來服飾類 調査를 갈 때마다 늘 생각해 왔다. 以前에 土藏의 二層에 保存되고 있을 때에는 항상 아주 상쾌한 狀態로 100 餘點의 服飾類가 保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생각컨데 土藏이라는 것은 火災에도 強하고 濕氣에도 影響을 받지않아 收藏庫 (特히 染織品) 로서 다시 없이 좋은 傳統的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한 經驗위에서 나는

正倉院의 染織品の 今後의 保存이 마음에 걸린다. 日本의 傳統的인 染織品 保存法으로서 위에서 舉風과 土藏등의 上杉家에서 뿐만 아니고 各古屋의 德川家 (德川美術館), 水戶의 德川家 紀州德川家の 服飾類를 多數 所藏하고 있는 紀州東照宮 (이곳의 服飾類는 1974年에 本人이 發見하여 5年間の 調査·研究後 冊으로 냈다. 이冊은 石宙善先生과 金英淑氏에게 贈呈하였으므로 冊으로라도 보아주시기 바람. 또 슬라이드로도 몇점 보여드리겠음) 加賀의 前田家, 長州의 毛利家, 岡山の 池田家等等, 16世紀以後 繼續되고 있는 大名家주위에서 400年 가까운 經驗을 쌓아서 今日에 전하여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그 훌륭한 實積은 今日 그 服飾類를 보고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것은 今後의 服飾類 保存法에 크게 活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染織品の 實物資料에는 대단히 상하기 쉽다는 取扱上의 難點이 있다.

個個의 使用度나 染料, 媒染, 地質 (糸質), 精練의 加減, 保存狀態 등에 따라서 상하거나 삭는 정도가 다르므로 오래된 것이 반드시 상한 정도가 심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大概 오래된 것은 損傷이 많고 삭기도 한 것이 大部分의 경우이므로 調査, 研究, 陳列, 撮影 등 때문에 藏에서 꺼내어 펼 때마다 褪色되어가고 破損도 늘어나게 되어 우리들의 신경을 쓰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래된 實物資料에는 여러가지 保存法이 採擇되고 있다. 法隆寺獻納 實物이나 正倉院의 染織品은 유리사이에 끼워 놓거나 額屏같은 것에 붙이든지 冊帖에 붙이든지 服飾品으로서 形態가 있는 것은 修理를 兼해서 안에다 새로운 천이나 종이를 대어서 保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도 褪色을 막을 수는 없고 어느 경우나 단지 保存

陳列은 어느정도 可能하지만 調査나 研究을 行하는 立場에서 보면 必要에 따라 錢에 接觸할 수 없든지 (유리에 끼우는 경우) 裏面을 볼 수 없든지 (유리에 끼우는 方法이외의 경우) 하여 支障이 있다. 그러나 正倉院의 錢類는 大概의 경우 同種의 것이 많이 있어서 같은 種類의 것이 유리에 끼운 것도 있고 冊帖에 붙인 것도 있어서 調査할 때는 同種의 것 중에서 保存法이 다른 것을 찾으면 서로 合하여 調査할 수는 있다. 또 하나밖에 없는 것은 꼭 必要할 때에는 유리에 끼운 것이면 유리를 벗기든지, 붙인 것은 떼어내어 調査할 수도 있다.

約 30年 사이에 점차 方法이 發達되었으나 (科學的 修理方法 - 例를 들면 傷한 錢에 樹脂를 사용하여 強化시키는 方法等 ………) 앞서도 말한 바와같이 아직은 이만하면 滿足하다는 線까지는 와있지 않고 當分間은 修理의 限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例를 들면 鶴岡八幡宮, 熊野速玉大社, 熱田神宮의 神服과 같이 服飾品の 形態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一但 保存의 目的은 達成되었으나 처음 만들었을 當初의 原形은 어느정도 상실되고 元來의 地質의 觸感등도 若干은 없어져 衣服의 形은 硬直되고 陳列上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나온다.

더욱 좋지 않은 것은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物品에 對한 調査도 完全히 原形에 가깝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로서는 조심성있게 하여야 하는데 例를 들면 錢의 성질이 없어지고 그대로 두면 纖維가 흩어져 버릴 정도로 極히 傷한 것에 대하여는 最善의 方法이라고 생각되나 形態를 가진 服飾品에 對하여는 상당히 慎重한 準備와 技術上의 檢討를 거친 다음에 行하여야 한다. 이에 關係서는 極히 最近에도 우리 研究

所에서 쓴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 試驗段階에서 絶對完全하다고 생각되었던 樹脂가 綿을 두텁게 넣은 衣類의 補強에는 全然 效果가 없고 오히려 修理에 손을 대지 않은 部分이 더 좋은 狀態라는 것을 알고 바로 중단하였다. 다음에는 陳列에 의한 染織品の 損傷과 對策에 關하여 알아보면 한마디로 그 損傷은 대단히 크다고 말할 수 있다. 陳列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染織品の 損傷은 一般的으로 行하여지고 있는 程度의 調査나 撮影에 의해서 일어나는 損傷과는 比較가 안될 만큼 크며 染織의 貴重한 實物資料를 傷하게 하는 最大의 原因이 되고 있다. 더욱 그 進行度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徐徐히 行하여지므로 注意를 기울이지 않으면 陳列에 의한 損傷을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常時 接觸하고 있는 博物館의 染織品에는 褪色 其他의 損傷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가끔 보는 사람은 그 變化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地方에서 發見된 染織品에는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鮮명한 것들이 더러 있다. 그것이 그後 重要文化財의 指定을 받아서 有名해지면 이곳저곳 展覽會에 陳列하게 되고 三·四年後에 다시보면 發見 當時와는 比較도 안될 만큼 褪色되어 놀랄 때가 종종 있다. 이것들은 勿論 發見될 때까지는 陳列되지도 않고 종종 舉風을 할 정도에 그치고 恒時 좋은 保存條件의 藏에 잘 保存되었기 때문에 色도 鮮明하고 破損도 적은 채로 傳해져 왔으나, 頻繁하게 꺼내서 展覽會나 陳列을 하게되어 그 損傷이 커졌을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褪色은 陳列 中에 생기는 심한 損傷이고 오래된 것, 새로운 것에 關係없이 確認할 수 있는 事實이다. 이런 일이 알려져서 한때 (山邊知行氏が 東京國立博物館染織室長時代)는 東京國立博物館에서는 染織品の 長期陳列

을 極力 避하였고 比較的 實物資料가 많은 新時代의 것이라도 길어야 1 個月을 基準으로하여 반드시 陳列品을 바꾸었다. 또 천이 약해지거나 찢어지는 등의 染織品の 破損은 陳列하는 限 아무리 慎重하게 取扱해도 避할 수가 없다. 대체로 染織品은 17世紀以前 것이면 取扱에 特別히 注意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 물건 自體의 使用度와는 關係없이 300年 가까이 지나고 보면 이제 壽命이 다 되어 천의 성질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17世紀以前 것들에 그런 徵候가 보이기 始作하면 陳列을 위하여 꺼내거나 펼쳐 움직이거나 옷걸이에 거는 것 등은 크게 破損시키게 하는 原因이 되므로 종기를 만지는 기분으로 取扱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옷걸이에 걸 때는 陳列中에 不可抗力의 破損이 생긴다. 어깨와 소매 部分에 衣服全體의 무게가 걸리고 또 그것이 짧은 時間도 아니어서 천의 성질이 없어지기 시작한 천은 무게가 걸린 어깨와 소매부분이 약해진다. 따라서 그 對策으로서는 17世紀以前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陳列期間을 짧게 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服飾品の 形態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陳列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着裝한 形態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着裝한다는 것은 옷걸이에 걸어서 陳列하는 것보다 훨씬 더 物品을 傷하게 하므로 可能하면 模造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目的은 貴중한 實物資料의 保存에도 있지만 陳列時에 着裝된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陳列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히려 模造品이 더 效果的일 때가 있다. 왜냐하면 옷걸이에 걸 때와는 달리 人形에 着裝시켰을 때 사람이 입는다는 實感을 주게 한다. 더욱이 實物資料에서는 褪色이나 修理한 상처가 아

무래도 초라하게 보여지고 또 實物資料의 경우 傷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입힐 때도 조심하고 매는 곳에도 느슨하게 매므로全體가 맥빠진 形態가 되기 쉽다. 이런 點에 있어서 잘 만들어진 模造品은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고 優秀한 模造品이 많을수록 會場은 몇배 돋보인다. 훌륭한 模造品 製作만 可能해지면 實物資料가 전혀 없는 時代의 것도 여러方面에서 考證을 進行하면 當時의 服飾品에 대하여 相當히 忠實한 復元이 이루어지고 復元한 것들은 陳列하여 時代順으로 展示하는 일이 편하게 된다. 模造의 服飾品과 考證에 의해서 復元된 服飾品을 합해서 小規模이지만 時代順으로 日本의 服裝을 人形에 着裝하여 展示하고 있는 좋은 例는 橫濱의 실크博物館(財團法人 실크센타 國際貿易觀光會館內)에 있다. 이는 1958年 山邊知行氏, 高田義男氏, 鈴木敬三氏等の 考證과 協力에 의하여 白木屋(現在の 東急百貨店 日本橋店)에서 作成하였다. 또 奈良國立博物館에서도 西村兵部氏等の 調査와 指導로 伎樂에 關한 服飾品의 復元模造가 順次로 行하여 졌다. 이와같이 服飾品의 着裝陳列에는 復元模造品이 適當하지만 한편 着裝하지 않는 陳列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陳列에 의한 染織品의 損傷을 考慮한다면 때에 따라서 實物資料代身 模造品을 陳列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日本에는 지금도 어느 정도의 復元 模造品이 있다. 高田裝束店製의 鶴岡八幡宮, 熊野速玉大社, 熱田神宮의 神服, 傳護良親王御料赤地綿鎧直垂의 模造品등은 종종 原品代身に 陳列되는 훌륭한 製品이고 또 같은 高田裝束店製의 上代の 禊 上代の 羅(重要無形文化財保持者-人間國寶-喜多川平郎氏의 復元으로 이루어진 模造), 龍村美術織物製의 名物 禊의 模造等은 原品の 調査 研究도 자주 行하여지고 技術的으로도 可能的한 限 原品再現의 忠實性


을 認定받은 優秀品으로 評判이 좋다. 단, 模造라고 稱하는 것들 中에도 단지 外見上의 紋樣이나 色彩만 흉내를 내고 組織이나 色은 復元模造에서 동떨어진 創作的인 것들이 있어 이는 商品으로서는 좋으나 模造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注意를 要한다. 생각컨대 染織品의 修理에는 스스로 限度가 있다. 적어도 現在 修理의 限界에 達해있는 것들이라도 急히 어떤 方法으로든지 保存할 必要가 있다. 放置해 둔다는 것은 모처럼 貴重한 實物 資料를 調査도 研究도 할 수 없는 作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1963年, 1964年에 出版된 朝日新聞社 發行의 「正倉院 寶物染織」 上·下는 正倉院의 染織品을 대충 수록한 것인데 特히 色彩의 保存이라는 目的에서 特別히 色彩의 發色에 注意한 原色原寸圖版이며 現代에 行하여지고 있는 保存의 한 方法으로서 意義가 깊다. 이러한 保存法과 함께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훌륭한 模造品을 만들어서 保存하는 方法이다. 多幸히 染織品의 學問的 調査研究도 進行되어 가고 있고 더욱 좋은 것은 傳統的인 染織技術도 여러가지 傳해지고 있어 그 技術者들의 技術은 相當히 高度이므로 지금에 와서는 그 技術者들 즉 重要無形文化財保持者-人間國寶-들의 各各의 專問分野의 復元模造에 協力을 받을 수 있다. 例를 들면 越後の 麻織物의 技術者들은 正倉院 麻布의 模造製作에 協力을 依頼시키면 原品에 忠實하고 技術的으로도 高度의 훌륭한 模造品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연유로 日本 染織品研究者인 우리들은 現在는 傳統的인 保存法과 修理法을 再認識하고, 科學的 方法에 대한 今後의 進歩를 초조하게 생각치 않고 길게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로 되었다. 性急한 科學的 保存法과 修理法에 뛰어들어 失敗한 經驗과 30年間の 研究經驗에서 染織品에 關係서는

그와같은 傳統的 方法에 따른 比重을 두기로 한 것이다. 陳列上의 注意는 科學的 方法이 比較的 많이 使用되고 있다. 室溫과 濕度는 晝夜의 差를 없애야 하므로 理想的인 것은 年間 室溫을 20~25度로 하고 濕度는 60%~65%로 해야 한다. 光線은 될 수 있는 限 弱하게 하고 直射光線을 避할 것, 傳統的 方法을 檢討해 보아도 溫度·濕度는 決코 急激한 變化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物品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은 物品을 잘 觀察해서 危險한 狀態까지 가기 前에 注意해서 病者를 다룰 때처럼 깊은 配慮가 있어야 한다. 사람도 健康體라 할지라도 無理를 하면 안되는 것처럼 좋은 狀態에 있는 染織品도 決코 無理가 가지 않는 取扱이나 陳列을 行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모두가 科學的인 뒷받침이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先祖는 오랜 經驗으로 놀랄 만한 方法을 생각해 내서 傳해 주고 있다.

※ 슬라이드

- | | |
|------------------------------|---------|
| ◎ 法隆寺傳來染織品 | 7世紀後半 |
| ◎ 正倉院傳來染織品 | 8世紀前半 |
| ◎ 上杉家傳來染織品 | 16世紀後半 |
| ◎ 紀州東照宮藏 德川家康·德川賴宜所用服飾類 | 17世紀初葉 |
| ◎ 橫濱실크博物館의 日本服裝史展示用 模造品 現代製作 | |
| | 總計 約80枚 |



科學的 保存方法

① 環境 保存의 案內

(ㄱ) 白熱燈과 螢光燈을 比較했을 때 紫外線의 含有量이 많은 螢光燈쪽이 變褪色의 程度가 約3倍 크다.

(ㄴ) 照度는 美術品 位置에서 150 - 200 Lux 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間接照明으로 한다.

② 染織品の 褪色과 그 防止 試驗

赤色 系統의 染料를 試驗의 主 對象으로 하였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赤色系의 色素는 대체로 紫·靑의 色光을 많이 吸收하고 赤色은 吸收하지 않고 反射해 버리기 때문에 赤色을 對象으로 하였는데 紫·靑에 가까운 色光을 많이 吸收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와 이어진 紫外線(波長이 거의 같음)도 많이 吸收할 것이다. 그 吸收된 靑, 紫, 紫外線등의 빛energy는 거기서 무엇인가 다른 形態의 energy로 變化된다. 빛에 의한 褪色은 이 energy에 의한 것이 明確한 일이다. 따라서 波長이 짧은 빛을 더욱 많이 吸收하는 赤色系의 染料는 一般的으로 말해서 褪色되기 쉬운 傾向이 있다는 것을 豫測할 수 있다.

☆ 褪色에 關與하는 빛

(ㄱ) 可視光線 중에서 褪色을 일으킬 걱정이 없는 色은 5800 \AA 보다 波長이 긴 빛 即 黃橙色에서 赤色까지로 알려져 있다.

(ㄴ) 褪色을 줄이기 위해서는 全體적으로 빛을 弱하게 하여 觀賞하고

普通 때에는 暗所에 두고 取扱 時에는 染色會社에서 赤外乾燥에 使用하는 것처럼(이것은 赤外線을 쬐는 것이 目的) 赤色燈을 使用함이 좋다.

(ㄷ) 따라서 紫外線이 染織品에 닿기 전에 除去해 주는 것은 대단히 意味가 있는 것이고 褪色 防止에 充分하지는 않지만 꼭 必要한 일이다.

☆ 褪色에 대한 濕度の 影響

染料의 褪色에 대하여 高濕은 대단히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日本 古來의 染料에 對해서도 勿論 같은 理論이지만 褪色 試驗의 結果는 그 豫想과 같고 高濕을 避해야 한다는 것이 分明해 졌지만 染料의 種類에 따라서는 반드시 乾燥할수록 좋다는 것은 아니고 대개는 그 以上 乾燥했을 때와 40% 때를 比較할 때 褪色度에 큰 差가 없다는 結果가 나왔다.

③ 콘크리트 建物에서 美術品の 材料가 받는 影響

近來에서 耐震·耐火·防盜를 考慮하여 더욱 經濟的인 콘크리트 建物の 收藏庫가 많이 생기고 있다. 콘크리트 建築은 新築 直後에는 그 自體가 充分히 乾燥되지 않았기 때문에 特히 保存 環境의 影響을 받기 쉬운 美術品の 收藏은 어느 期間 동안은 避해야 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으나 現在까지 納得할만한 科學的 說明은 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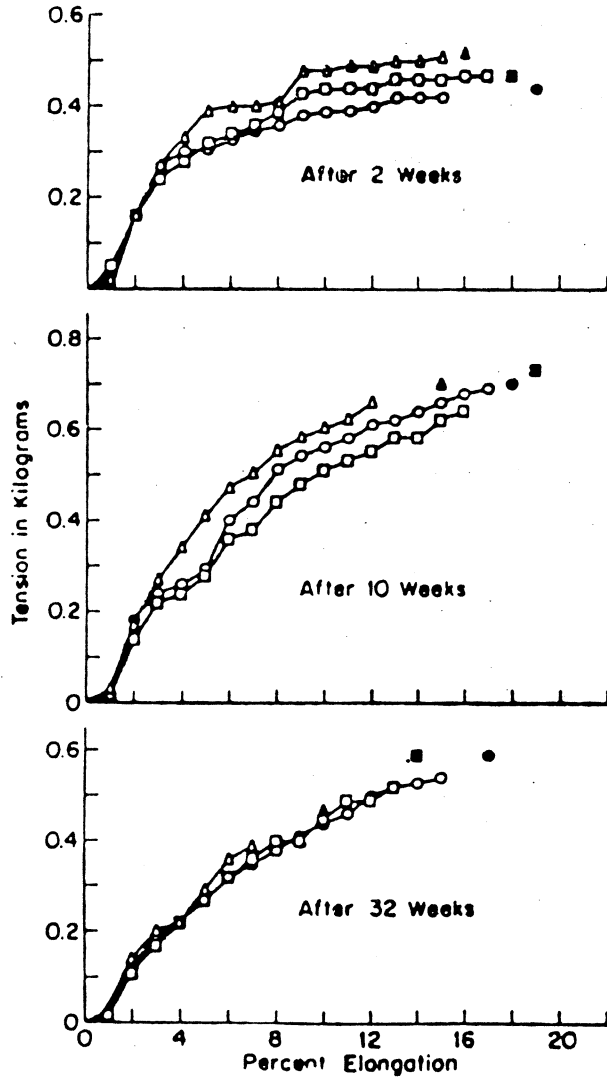
☆ 콘크리트造 內에 長期間 收藏한 후 變化 觀察

濃靑·淺靑의 靑色系의 染料는 褪色, 蘇芳·赤色系의 染料는 靑色系의 染料와 比較해서 變化가 적었다. 絹絲도 白色에서 黃色을 띠게 되고 強度도 低下되었다. 이는 相對濕度 80% 測試기內의 같은 試料의 變化보다 빠

르고 또 變化도 크다.

☆ 實驗 結果

시멘트 상자 안에 淺葱, 濃靑 等の 靑色系의 色은 많이 褪色되어 있고 (約 50%) 特히 濃靑色에서는 700 m μ 附近에서 현저하게 反射率이 올라가고 赤色을 띠우게 된다. 이에 對하여 赤色系의 紅緋 蘇芳 繻等에서는 일정하게 褪色을 나타내고 있으나 靑色系에 比하면 그 變化는 적다. 絹絲를 ① 시멘트 상자 內 ② 水蒸氣 飽和 脫시게다內 ③ 50% 淸淨한 空氣中 放置 等の 경우 試驗 結果는 아래 圖와 같이 ①의 경우가 ③에 比해서 훨씬 變化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虫菌의 害로부터 保存 必携

乾燥 動物質을 嗜好로 하는 害虫은 Dermestidae이며 文化財로서는 皮革製品 書物의 羊皮紙, 皮表紙, 毛織物 等이 加害對象이 된다.

☆ 總尾目 Thysanura

풀을 바른 紙類를 좋아하는데 絹·人絹·스푸類 等도 加害하는 데 때로는 몹시 해지게 만들 때도 있다.

☆ 豫防(防虫)…… 小型 文化財의 경우 필자는 파라디크로루벤젠을 推奨한다. 使用量은 유리 케이스 또는 一定한 크기의 閉鎖된 容器內에 40g/ m^3 의 比率로 한다. 實驗 成績에 의하면 위의 半量으로도 有效하기는 하나 若干의 空氣 流動을 考慮하면 위의 量이 바람직하다. 그 量으로도 空氣의 流動이 좋은 곳에서는 完全하지 못하다. 收藏庫의 一室 全體의 容積에 關係해서도 위의 比率이 좋으나 너무 大量을 使用하는 것은 費用面에서나 入庫者가 강한 藥臭에 견디기 어려워 適當한 措置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이들 防虫劑를 使用할 때에 注意할 點은 파라디크로루벤젠과 樟腦를 混用하면 안된다. 兩藥劑가 接觸하면 바로 樟腦의 溶解가 始作되고 透明한 液體가 되어 다시 그것이 파라디크로루벤젠을 溶解시켜 全體가 液體가 되므로 貴重한 文化財를 汚染시키는 경우가 있다. 直接 接觸하지 않을 경우에는 急激한 變化는 일어나지 않는다. 역시 漸次 溶解하여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새롭게 防虫劑를 넣을 경우에도 以前에 무엇을 使用했나를 確認하고 補給하지 않으면 이와같은 化學反應을 일으킬 危險이 있다. 最近 DDVP 樹脂 蒸散劑가 文化財의 防虫에 使用되고 있다. DDVP는 극히 速效性이고 揮散도 빠르므로 이것을 短冊型의 合成樹脂 板에 含浸시켜서 蒸散을 抑制하여 2~3個月間 防虫 效果를 保持시킨다. 閉塞 空間에서는 防虫 뿐 아니라 殺虫 效果도 있으나 開放 空間에서는 많은 效力의 減退를 일으킨다. 接近하여 使用하면 鐵의 發銹가 促進될 危險성이 있으나

아주 接近하여 使用하지만 않으면 文化財의 防虫에 充分히 利用할 수 있다. 博物館·資料館·美術館 等の 展示品·收藏品의 素材는 여러 種類가 混 合되어 있어서 各己 適當한 溫度·濕도가 있으나 따로 따로 保存할 수가 없으므로 그들의 平均的 條件으로서 溫度 20℃, 濕度 60% 内外가 推獎되 고 있다. 그러나 이 條件 下에서는 害虫의 完全을 抑制할 수가 없으므로 平素에 警戒해야 한다. 被害의 早期 發見은 極 重要하므로 一定한 날을 定하여 定期的인 清掃와 點檢을 해야 한다. 먼지를 털고 虫害의 發生을 點檢하고 만약 發見되면 即時 有效 適切한 對策을 세워서 後로 미루는 일 이 없어야 한다.

⑤ 防菌 防黴劑의 效力과 安全性

生物劣化防除는 文化財의 材質에 變質·變色 等の 影響을 주지 않고 目的을 達成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따라서 文化財 保存의 科學的 觀點에 서 殺菌, 殺虫劑 또는 防黴, 防虫劑를 選擇할 경우에는 먼저 藥劑의 材質 에 미치는 影響의 有無, 다음에는 殺菌, 殺虫效果, 安全性, 殘效性에 對하여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般 工業製品의 防菌, 防黴과는 重點 두는 곳이 逆으로 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와같이 重點이 逆이 되면 거기에서 派生되는 여러가지 未檢討 問題가 있으니 注意를 要한다.

☆ 防黴劑의 材質에 미치는 影響

호르모아루데이드는 材質에 미치는 影響이 적은 殺菌劑로서 報告되어 있 다. 이는 糸狀菌의 分生子에 대하여 $4 \sim 13 \text{ g} / \text{m}^3$ 로서 殺菌 效果를 나타

내고 지모르는 $150 \text{ g} / \text{m}^3$ 로서 防黴效果를 나타낸다.

⑥ 文化財의 燻蒸處理 標準方法

使用 藥量은 燻蒸容積, 燻蒸時間, 氣溫 등을 考慮해서 決定한다. 氣溫 25°C 燻蒸時間 24時間 殺虫을 目的으로 했을 경우 藥量 $35 \sim 50 \text{ g} / \text{m}^3$ (燻蒸 中の 空間 均一 가스 濃度 $20 \text{ g} / \text{m}^3$ 以上 保持할 것) 을 標準으로 하고 있으나 冬季 低溫時에는 倍量으로 한다. (但 藥害를 받기 쉬운 文化財에 對해서는 減量하지 않으면 안됨) 殺黴을 目的으로 할 때는 臭化 메틸과 酸化 에지렌의 混合劑를 사용하고 藥量은 $100 \text{ g} / \text{m}^3$ (燻蒸 中の 空間 均一 가스 濃度 $60 \text{ g} / \text{m}^3$ 以上 保持할 것) 을 標準으로 하고 있고 冬季 倍量 使用時는 藥害의 위험이 따르므로 藥量을 늘이지 말고 燻蒸時間을 2~3倍 延長한다.

⑦ 纖維에 發生하는 곰팡이의 研究

今般 纖維製品上의 곰팡이의 發生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追跡하였다. 紙上에는 종종 Foxing라는 汚染이 나타나는데 그 部分을 檢鏡하여도 菌絲와 纖維의 形이 區分되지 않고 確認할 수가 없었다. 생각컨대 紙·布의 中央部에 生長하고 그 分泌하는 有機酸 其他의 物質이 褐色變化를 促進하는 것으로 推測된다. Foxing 部位에는 顯微鏡상으로는 黑色 또는 褐色의 點이 나타난다. 이것은 菌이 柄을 뺀어서 表面까지 나와 結實된 것으

로 생각되나 確實하지는 않다.

歷史를 더듬어 보면 乾燥物體 發黴의 主犯인 *Aspergillus* 屬과 *cladosporium* 屬은 最初植物 腊葉上에 發見되어 各己 *Asphervariorum* (De Barg 1850), *clad hervarum* 이란 이름을 남기고 있다. 腊葉의 花卉은 엽기 때문에 透過光으로 檢鏡이 쉽게 된다. 그곳에 생기는 Foxing 에는 곰팡이의 結實을 分明이 볼 수 있다. 花卉을 貼布한 紙片上에도 같은 形態의 黑點을 볼 수 있다. 부근에 있는 花梗土에는 定型的인 *Aspergillus* 의 結果를 볼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면 Foxing, 腊葉紙上의 Foxing, 花卉의 黑點, 花梗上의 結實은 類似한 現象이고 紙上의 Foxing 의 主體가 곰팡이라는 結論이 나온다. 腊葉과 Foxing에서의 곰팡이를 分離한 結果는 大部分 *Aspergillus* 이고 少量의 *cladosporium* 이었다.

朝鮮時代 出土服飾의 實態

博物館長 石 宙 善

“朝鮮時代 出土服飾의 실태”

纖維製品인 衣類는 모든 民俗品과는 달리 制限된 壽命 속에 가장 氾濫되기 쉬운 것의 하나이다. 우리 衣生活은 입어서 더러우면 빨아서 입고, 해지면 기워 입다가 그래도 못 입게 되면 버리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었다. 그러한 因襲, 속에 매 묻은 옷이 남겨질리 없고, 간혹 남아 있는 옷이라면 세간에 유명하였던 분들의 옷으로 遺物로, 혹은 後孫에게 전하는 家寶로 약간의 유품이 있을 뿐이다. 항차 몇 백년전에 묻혔던 白骨이 미이라로 남아 衣服과 같이 발굴될 줄이야 미처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國家가 발전함에 따라 눈부신 開發途上에서 우리 나라는 팔목할만한 文化遺産을 차지하게 되었다. 新安 앞 바다에서 引揚되는 唐, 宋, 元時代(8C - 14C)의 도자기를 비롯하여, 여기 버금가는 몇 백년전 埋葬된 纖維 文化財이다. 地上의 纖維도 몇 백년 지나면 自然 氾濫되는데, 몇 백년동안 땅속에 묻혀 썩지않고 남은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

1963年 京畿道 廣州郡 細村面 岩洞里에 있는 思悼世子의 따님인 淸衍郡主(A.D 1754 ~ 1821) 墓에서 衣裳 및 副葬品 약 200余點이 발굴되었다.

160余年 前에 땅 속에 묻혔던 纖維가 썩지않은 채 原形대로 발굴된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종류를 가려보면 삼희장저고리 35점, 반희장저고리 3점, 속저고리 22점, 치마 24점, 앞치마 2점, 唐衣 25점, 대례복 2점, 大歛衾 2점, 天衾

1 점, 裹肚 한 점, 紅帶 1 점, 膝襪 2 점, 合葬이었던 夫君 金箕性의 옷인 대례복 7 점, 朝服 1 점, 天翼 2 점, 中致莫 3 점, 道袍 3 점, 髦衣 2 점, 戰服 2 점, 소창옷 5 점, 具軍服 2 점 등이고 그 외에 淸衍郡主 墓誌가 4 점, 夫君의 墓誌가 12 점, 出土되어 年代와 遺物의 確實性을 뒷받침해 준다. 백자명기 5 점, 銅인장 2 점, 골제 붓대 4 점, 玉비녀 1 점, 玉盒 3 점, 靑銅硯滴 1 점, 銀盒 2 점, 벼루 2 점, 墨 파편 6 점등도 같이 出土되었다. 遺物은 現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1966年 京畿道 楊州郡 瓦阜面 馬峴里에서 壽衣가 出土되었다.

洪濟猷 碑文에는 「崇禎紀元後三壬寅四月」이라 記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朝鮮朝 第 22代 正祖 6年 (1782년) 이다. 碑文 내용에는 「朝鮮章陵參奉贈吏曹判書愛○齊洪公濟猷之墓贈貞夫人恩津宋氏附左」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발굴 당시에는 수 점의 의류가 出土되었는데 모두 소각해 버리고 하도 깨끗해서 한 점만 남겼다는 뒷이야기이다.

뒤 늦게 현장 조사를 하고 명주袍 한점을 인수 받았다.

現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소장

1968년에는 京畿道 廣州都 草月面 雙嶺里에서 미이라와 의류가 발굴되었다.

미이라는 朝鮮朝 第 2代 定宗의 駙馬 朴賓의 五代孫 며느리 安東 金氏로 族譜에 의해 406年 前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옷 종류로는 솜치마 2 점, 솜저고리 2 점, 솜바지 1 점, 솜버선 한 켤레 비단신 한 켤 등이다. 遺物은 現 國立民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1979年 京畿道 果川에서 廣州 李氏 제 8代 彦雄과 그의 며느리인 中宗의 제 2女 懿惠公主의 孫女 淸州 韓氏의 壽衣가 발굴되었다. 淸州 韓氏는 結婚 後 곧 無子로 죽었으며, 그의 남편은 彦雄의 獨子인 執一로 (A·D 1574 ~ 1613) 1580年代로 추정된다.

遺物의 內容은 團領 1점, 警衣 (半破) 1점, 창옷 6점, 帖裏 1점, 무명누비袍 1점, 무명겹袍 1점, 모시袍 3점, 모시적삼 3점, 여자 저고리 13점, 치마 6점, 속곳 3점, 명주솜옷 (半破) 1점, 모시옷 (半破) 1점, 명주누비 (半破) 1점, 小殮布 2점, 小殮衾 1점, 이불 1점, 지요 1점, 幘目 2점, 버선 한 켤레, 握手 1점, 너른바지 1점, 습신 외작 총 54점이 발굴 정리 되었다.

이 出土品들은 1980年 11月 29日 重要民俗資料 제 114호로 지정되었으며 現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1980年 京畿道 楊州郡 楊根面 所在인 南陽 洪氏 十三世 禮史公 諱漣 十世孫 縣監 諱係江 墓에서 壽衣가 出土되었다. 係江 (A·D 1400 ~ 1450) 은 進士 縣監을 거쳐 兵曹參議를 지냈으며 夫人 原州 元氏는 淑夫人을 받았다.

子孫으로는 四男을 두었는데 長男 吉昌은 縣監을, 次男 慶昌은 1489年 文科에 올라 進士, 安東府使를 거쳐 禮曹參判을, 三男 孝昌이 1522年 文科를 거쳐 府使를, 四男 德昌이 生員이었다.

出土品 內容은 官服 3점, 天翼 7점, 直領袍 7점, 누비袍 1점, 女子저고리 3점, 치마 4점, 바지 1점, 속곳 2점, 이불 1점, 남자버선 외작, 여자버선 외작 無形조각 1점, 습신 외작, 총 33점이 정리되었다.

現 石宙善紀念民俗博物館 소장

1981年 京畿道 龍仁郡 金良場里 山에서 朝鮮朝 제 14代 宣祖의 曾孫 耽陵君 胤 (A·D 1636 ~ 1731) 墓에서 銘旌을 비롯하여 66점의 壽衣가 出土되었다.

耽陵君의 父親은 宣祖의 제 7 王子인 仁城君과 郡夫人 尹氏 사이에 태어난 5男2女 중 次男인 海安君이며, 제 6 王子인 順和君이 無子이므로 海安君이 出系하여 順和君의 代를 이었는데 그의 十男妹中 次男이 耽陵君이다. 耽陵君은 仁祖에서 英祖에 이르기까지 벼슬을 하여 都摠府 副摠官으로 끝마쳤다.

出土品の 내용은 胸背 2雙, 官服 3점, 天翼 2점, 中致莫 20점, 擎衣 5점, 中單 1점, 袴履 3점, 道袍 2점, 女子저고리 1점, 襟子 1점, 저고리 2점, 바지 6점, 습신 외작, 紗帽 1점, 베게 1점, 頭髮囊 1점, 左手囊 1점, 右足囊 1점, 網巾 1점, 角帶· 1점, 腰帶 1점, 幄手 1점, 天衾 3점, 지요 1점, 大歛衾 2점, 柩衣 1점, 銘旌 1점, 총 66점.

現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소장

위의 遺物들은 直接 調査 정리한 것으로 옷감의 名稱, 實測 치수, 등 사진과 記錄이 本 博物館에 정리되어 있다.

발굴된 유물들은 年代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더 부식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地質과 埋葬 方法에 起因되는 바 크다고 생각되며, 앞으로의 발굴 방법에 있어 여러 專門家의 混成팀의 作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일단 引受 받은 의류 (纖維)는 우선 물에 넣어 汚物과 惡臭를 빼야 하

며, 充分한 시간을 두고 말리어야 한다. 마르는 시간이 길 수록 뒷처리에 도움이 된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在來式으로 藥品은 되도록 直接 물체에는 사용하지 않고 세탁과 건조시키는데 신경을 쓴다. 完全히 건조되었을 때 다리미질을 하고, 보완작업에 들어간다. 形態를 완벽히 하기 위하여 떨어진 부분에는 새로운 천을 보충해서, 옷의 면적을 정확히 한다. 보완하는 동안에는 더욱 건조에 도움이 된다. 완전하다고 느껴졌을 때 비닐 주머니를 물체보다 $\frac{1}{2}$ 쯤 길게 만들어 물건을 넣고 봉하지 말고 그대로 한 끝을 접어 오동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너무 밀폐해 두는 것만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어 보는 것도 보관상 정신적인 안의를 주었고 실제로도 도움이 되지않았나 생각된다. 경험이 즉 과학이 아닐까? 아울러 出土服飾의 色彩變化는 앞으로의 큰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